

데스크시각



장 필수
편집부국장·전남본부장

#2014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전국 임대 사업자 순위가 드러났다.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광주에 사는 60대로 2312채를 갖고 있었다. 2위도 50대 광주 남자로 2062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임대 사업자 순위가 보도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광주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씨는 2000년 광주 북선동 13평 아파트를 2000만 원에 경매로 받았다. 여동생이 임대로 살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자 어쩔 수 없이 받았는데 이것이 효자가 됐다. 그 사이 아파트 가격은 네 배나 올랐고 지금까지 매달 임대료로 30만 원을 받고 있다.

‘아파트 도시’ 광주의 주택 시장 특성이 잘 드러나는 사례들이다. 극단적인 예라고도 할 수 있지만 광주에서는 아파트

아파트가 랜드마크인 도시, 광주

가 짝짤한 수익을 보장해 주는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주택보급률 105%, 아파트 전세가격(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80%로 전국 1위라는 통계만 믿고 집을 사지 않은 사람은 자고 나면 오르는 아파트 값 때문에 월급만 모아서도 새 집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다. 그러는 사이 건설업체와 임대 사업자들은 62%에 머물고 있는 자가 보급률과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 수익률을 믿고 아파트 공급을 쏟아내고 임대주택을 사 모아 재미를 봤다.

무분별 인가로 공급 과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 비중은 광주가 65.5%로 세종시(73%)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사실상 광주시가 가장 높은 셈이다. 광주를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유독 아파트가 많다고 지적하곤 하는데 빈말이 아니다. 광주에서 가장 높은 48층 건물이 주상복합 아파트인 것을 두고 ‘광주의 랜드마크가 아파트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다.

광주가 아파트 도시가 된 데는 건설사들의 치밀한 공급 전략이 자치단체의 요

구와 맞아떨어진 측면이 강하다. 건설사들은 2006년 수완지구 미분양 후폭풍으로 6~7년간 아파트 공급이 끊기면서 신규 아파트 수요가 일차 분양가를 올려 공급에 나섰고 광주시와 구청은 노후 주택 문제 해결과 인구 유입 효과를 내세워 재개발과 재건축을 무분별하게 인가했다. 여기에 저금리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수도권의 투기 자금까지 가세했다.

건설사들은 지난 4년 동안 광주에 3만 7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했고 앞으로 3년 내에 4만여 가구를 쏟아 낼 예정이다. 광주 계림8구역 4057가구를 비롯해 도심 4km 이내 19곳에서 재개발이 진행 중으로 2022년까지 3만300여 가구가 공급되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도 1만 가구가 나온다.

단순히 공급이 많다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다. 수익 극대화를 꾀하는 건설사의 고분양가를 자치단체가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지난 5~6월 한 달 사이에만 3.3㎡당 최고가 분양가가 1632만 원(화정동)→2367만 원(봉성동)→2375만 원(봉선동)으로 세 번이나 경신했다. 그 과정에서 자치단체들은 건설사들이 제시하는 분양가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심지어 광주시는 최

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민간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의 고분양가와 역점을 상향 요구까지 수용해 논란을 낳고 있다.

아쉬운 자치단체 주택정책

과도한 물량 공급과 고분양가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고분양가는 인근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려 주택 양극화를 초래한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물량이 늘어나면 노후 아파트는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아파트가 될 공간이 크다. 발 빠른 투자자들은 벌써 이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 2014년 전국 최다 주택 소유자였던 광주의 그 60대는 531채만 남기고 나머지를 이미 처분했다. 건설업체들도 울해를 분양 열기 끝물로 보고 막차를 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마치 ‘폭탄 돌리기’를 보는 듯하다.

그동안 고수익을 추구하는 건설사를 제어하지 못한 자치단체는 이제부터라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주택 정책을 펴야 한다. 폭탄이 터지면 섣달한 시민들만 다칠 게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이다.

/bungy@kwangju.co.kr

은펜칼럼

‘콜라보도 송가인이어라’



이 병우
단국대 교양대학 외래교수

“드디어 김구 선생이 그렇게 원했던 문화 강국으로 정말 진입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생전에 첫 댓글을 달아봅니다. 송가인씨의 노래는 내 삶에 많은 즐거움과 위안을 주고 있어요. 참고로 저는 71세 노인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장르에서 입이 썩, 가슴 뭉클, 무릎 탁, 신비스럽기까지 하네요.”

송가인의 유튜브 영상에 담긴 댓글도 역대급입니다. 콜라보 신곡 ‘남아’ 영상이 지난달 31일 애플 공식 유튜브에 공개됐는데 사흘만에 100만 조회수를 들

파해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언론에서 “소름 돋는 콜라보로 관객에 미친 호응 받은 윤민수 x 치타 x 송가인 ‘남아’ 무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개 가수, 시청률의 요정이라고 불릴 만합니다.

미디어도 송가인 관련 기사나 칼럼이 차고 넘칩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인기가 급상승한 가수들이 많았지만 송가인처럼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킨 가수는 여태껏 없는 듯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히트 가수 한 명이 탄생했다고 보기보다는 사회 흐름의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창조할 사항이 아주 많다고 보고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낯 것의 힘입니다. 낯 것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으면 실력과 배짱을 겸비해야 합니다. 지금은 유행어가 된 ‘송가인이어라’라는 인사말도 그렇습니다. 전라도 출신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다는 것은 보통 배짱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초기엔 약

플도 많았지만 슬기롭게 잘 극복했습니다. 판소리로 다져진 가창력, 오랜 무명 생활을 견딘 꾸준함, 소탈하고 꾸밈없는 모습에다 때로는 승부사적 기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여율려져 멋진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 냈다고 봅니다.

둘째는 시니어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실명으로 쓴 예의 바른 댓글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처음 댓글을 달아본다는 사람도 많고 스스로 나이를 밝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동안 시니어 세대는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소외받아왔는데 이들이 좋아할 만한 대상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지하는 댓글을 달고 티켓을 구입해서 공연장을 찾고 있습니다. 실로 엄청난 변화입니다.

셋째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실감하게 됩니다. 미디어의 대세는 유튜브입니다. 더구나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는 세대는 50~60대입니다. 유튜브는 얼마든

지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 관련 동영상도 잘 찾아줍니다. 유튜브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자기 생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미스트롯’을 기획한 TV조선도 유튜브 채널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새로운 영상을 유튜브에서 접한 후에 관심이 있느냐가 분방을 보게 되고 이것이 선순환을 이뤄 시청률 대박을 칠 수 있었습니다. SNS에는 “살다 살다 TV 조선을 다 보게 되네요”라고 토로하는 글들 많이 보게 됩니다.

송가인 현상에 대해 한편에서는 당혹감을 보이기도 합니다. “대중 가수의 힘은 히트곡인데 변변한 자기 노래도 없는 신인 가수의 인기가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고 말이지요. 하지만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는 시니어 팬층과 탄탄한 가창력, 거기다 인생역전의 스토리까지 갖추고 있어 인기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송가인이 우리 가요계의 한 획을 그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 고

해외 취업의 ‘꿈’



장 병석
조선대 글로벌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학과 LINC+사업단 교수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운 시기이다. 단기 알바 한 명을 뽑는 자리에 70명이 지원했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일자리’ 구하기가 녹록지 않다. 하물며 수십, 수백 대일의 경쟁을 거쳐 번듯한 직장의 정규직에 취업하기는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아주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다. 취업이 어려운 현실 앞에 대학 교육 현장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과 함께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사회 진출 전 마지막 교육 과정이라 할 대학은 이제 진리 탐구의 상야탑, 학문의 전당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조차 ‘인재 = 취업 성공인’이라는 등식으로 이해가 되고 있다. 대학이 그저 취업을 위한 발판에 그쳐서는 안 되겠지만, 대학 교육까지 받고도 취업이 어려운 지금, 대학이 졸업생들의 취업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아니, 지금은 취업률이 대학의 간판을 대신할 정도로 취업 전략과

운용이 대학에 대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 취업 시장의 현실을 살펴보면, 공식 실업 인구 100만여 명에 알바생, 비자발적 비정규직, 취업 준비생 등 비공식 ‘미취업’ 인구 100만 명~200만 명, 거기에 매년 쏟아져 나오는 고교·대학 졸업생 70만 명을 합쳐 300만 명 이상의 구직자들이 취업 시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반면, 이들이 취업하고 싶어 목을 매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매출 순위 500대 기업 이내), 공무원, 공기업 등은 모두 합쳐봐야 신규 채용 인원이 2~3만 명에 불과하여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괴리를 해결할 방안이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아 보인다. 공무원·공기업 자리를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 경제 성장 기반 없이 기업에 일자리를 대폭 늘려 주라고 요구하기도 곤란하다. 점차 학령 인구가 줄어들긴 하지만 취업 시장의 어려움은 당분간 쉽사리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다면 국내 취업 시장을 벗어나, 해외 취업 시장의 사정은 어떨까? 우선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나누어 파악해 본다면, 개도국 취업은 기본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베트남 대졸 초임이 한국의 17% 수준) 한국 기업 파견 주재원이 아닌 이상 취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해외 취업은 곧 선진국 취업을 의미하게 되는데, 주요 선진국인 북

미, 유럽 국가 대부분이 외국인 취업에 매우 제한적이다. 그나마 독일, 일본, 호주 등이 외국인 취업 시장을 개방해 놓고 있는데, 일단 해당 언어에 능통해야 하고 이에 더해 전문적 기능(IT, 엔지니어링, 미용 등)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 취업 이상으로 어려운 형편이다.

그래서 주목하게 된 지역이 필자가 이전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재원으로 근무하였던 싱가포르이다. 싱가폴은 1인당 GDP 6만 불을 넘는 선진국이나 출산율 0.83의 세계 최저 출산율으로 매년 5~6만 명의 노동력이 부족하여 외국인 취업 시장이 개방된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 한국인에 대한 취업 비자 발급이 비교적 관대하다. 그리고 싱가포르 기업은 스펙이나 학벌이 아닌 적성, 책임감 등 일에 대한 마음가짐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전공, 성별, 연령과 무관하게 채용한다는 점에서 우리 젊은 이들의 해외 취업에 유리한 시장으로 판단된다.

학생들의 진로를 상담하면서 KOTRA에서의 해외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3년 전부터 우리 학생들의 싱가포르 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중 한 취업생은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있을까 싶다”고 할 정도로 싱가포르에서의 생활에

만족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은 아직 사회 초년병들이지만 곧 중요한 포스트에 올라가 더욱 멋진 모습으로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되어 줄 것이다.

졸업생의 해외 진출이 조금씩 결실을 맺어감에 따라, 그동안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과를 운영해 온 조선대 프랑스어권 문화학과는 2020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취업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GBC)학과로 학과명을 바꾸고, 그에 맞는 커리큘럼과 실질적인 해외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혁신 역량 강화, LINC+사업 등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학생들의 글로벌 소양을 신장시키고 현지 적응을 위한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학과가 제시한 전공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마지막 학기에 해외 인턴을 이수하고, 졸업과 동시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게 하여 해외 취업의 ‘꿈’을 이루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 우리 졸업생이 누군가에게 목표가 되고 꿈이 되는 사람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가슴에 품은 해외 취업의 ‘꿈’을 생생한 현실로 바꾸고, 글로벌 무대에서 빛나는 활약을 펼칠 졸업생들의 밝은 미소를 상상해 본다. 해외 취업의 ‘꿈’이 이 시대의 많은 청춘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소망한다.

社 說

원전 주변 ‘드론’ 방호 체계 구축 서둘러야

국가 보안 시설인 한빛원전 상공에 드론이 잇따라 출몰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원전 주변은 비행체 운행이 전면 금지돼 있지만 드론 등에 대비한 방호 체계는 사실상 전무해 유사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빛원자력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8시 37분께 영광 한빛원전 인근 가마미 해수욕장 상공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미확인 비행 물체 한 대가 발견됐다. 드론은 20여 분간 비행하다 계마항 쪽으로 이동해 사라졌다.

당시 원전 측은 드론 추정 물체가 포착되자 곧바로 군 당국과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은 영광 흥농삼거리 교통을 통제하고 검문을 실시했지만, 드론 소지자나 조종자를 찾지 못했다. 문제는 한빛원전 인근 드론 비행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017년 4월에도 한빛원전과 8km 떨어진 영광 백수읍에서 무단으로 드론을 날리던 조종사가 적발돼

경찰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원전은 국가 보안 시설 가운데 최고 등급인 ‘가’급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항공안전법에 의해 주변 반경 18km 이내, 고도 3km에서는 비행체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드론을 띄워 원전을 무단 촬영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런데도 최근 3년간 영광을 포함해 전국의 원전 일대 비행 금지 구역에 여섯 차례나 비행체가 출몰했고 이 가운데 세 차례는 조종사와 비행체조자 확인하지 못했다.

원전 상공에 드론 출몰이 반복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식별하거나 격추할 수 있는 방호 체계가 전혀 구축돼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만에 하나 드론을 이용한 테러 등이 발생해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드론 등을 즉시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장비 개발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나 홀로 간담회’ 해명만으로 끝나선 안 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회견이 어제 새벽까지 약 10시간 45분 만에 마무리됐다. 기자들의 질의에 조 후보자는 딸의 논문과 스펙 부풀리기, 장학금, 가족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 핵심 의혹에 대해 대부분 “나는 몰랐다”고 했다.

당초 2~3일로 예정됐던 국회 인사청문회는 무산됐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이후 공식후보자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은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이나 증인·참고인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후보자나 증인에게 선서를 통해 위증 책임이 주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검증은 위한 법적 권능을 가진 청문위원회와 달리 기자들의 질의는 공허했고 단지 조 후보자에게 해명 기회만을 주었을 뿐이다.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한국당의 책임을 맡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당

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청문회를 계속 지연시켜 왔다. 이날도 가족 증인 채택을 양보하는 대신 청문회 일정 연기 카드를 내놓았지만 청문회 무산 책임을 피하고 추측 때까지 ‘조국 이슈’를 끌고 가겠다는 속내가 보였다. 그렇다 해도 청와대와 민주당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국회 청문회를 통한 의혹 추궁과 검증은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뜻을 저버릴 때문이다.

그때에도 국민이 궁금해 하는 의혹은 조 후보자가 직접 해명했으니 이제 임명을 해도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인 듯하다. 하지만 이는 오산이다. 이제 통과여례를 마쳤다면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여야가 협의해서 청문회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

청와대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때 법정 최장 시한을 활용해 국회 청문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축구·농구·하키 등 구기 종목에서 실수로 자기편 골대에 공을 넣어 상대방에게 점수를 주는 골을 자책골 또는 자살골이라고 한다. 한때 ‘자책골’은 스포츠 종목을 넘어 국한된 것은 아니다. 정치권에서도 자신들의 지지율을 꺾어 먹는 자책골이 비일비재하다.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비롯한 전국이 시끄럽다.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의 논문 특허 논란 등이 불거

지면서 일부 진보 진영에서 조자 조 내정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따뜻하지만은 않고,

일부 국민의 실망감도 날로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의 지지율 또한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조 내정자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지지층 일부가 등을 돌린 것이다. 하지만 조 내정자의 각종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최근 연이어 자살골을 터트리고 있다. 그 때문인지 현 정부의 지지율 하락세도 멈춰 섰다. 대표적인 자살골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부산 발언이다. 나 대표는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광

주일고 정권’ 발언으로 정치권과 시민단체 또는 온라인에서 못마를 맞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영남 지지층 결집을 노린 발언으로 보이지만, 제1야당 원내대표가 팩트도 아닌 ‘가짜뉴스’를 장외집회에서 유포했다는 게 더욱 논란이 되면서 최근 정치권에서 최고의 자책골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같은 당 정치계 원내대변인은 이른바 ‘조국 자위(自衛)’ 논평을 내면서 성희롱 논란을 불렀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공방과 선거법 개정안 의결 강행 등 굵직한 현안들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자주 자유한 국당 스스로 ‘막말’을 일삼으면서 ‘자책골’을 넣고 있으니 민주당은 자연스럽게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셈이다.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소양부터 길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떠나 막말로 국민들의 귀를 더럽히고, 자책골로 당의 지지율을 꺾어 먹는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철저히 배제해야 할 것이다. /최원철 정치부 부장 cki@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월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대표 FAX 222-4918〉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61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체 육 부 220-0633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42	사 진 부 220-0694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